

전남북 7개大 정부 재정지원 제한

평가순위 하위 15%...대불·명신·초당·성화·원광·서남·전북과학大

학자금 대출 등 중단...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대불대·명신대·초당대·성화대 등 전남지역 4개 대학과 원광대·서남대·전북과학대 등 전북지역 3개 대학 등 전남·북 7개대를 비롯한 전국 43개 사립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선정된 이들 대학에는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관련기사 2·6면>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이나 대출 지원 제한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혜안이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5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중 대학 9개, 전문대 8개 등 17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도 지정됐다. 총 17개인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중 '대출제한 그룹'에는 경동대·대불대·루터대·목원대·원광대·추계예술대 등 4년제 6개와 김포대학·동우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학·전북과학대학 등 전문대 7개 등 총 13개가 포함됐다. 또 '최소 대출그룹'에는 건동대·명신대·선교청대 등 4년제 3개와 전문대인 성화대학 등 모두 4개가 선정됐다.

이들 중 루터대·동우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영남외국어대학·건동대·선교청대 등 7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제한대학이 돼, 내년 신입생 뿐만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이번 평가에는 종교계 대학 21개 중 15개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2012학년도 대출·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한대출 그룹(13개교)	
4년제 (6개교)	전문대 (7개교)
루터대학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 대비 70% 한도)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4개교)	
4년제 (3개교)	전문대 (1개교)
명신대학교,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	성화대학
(일반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 대비 30% 한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4년제 (28개교)	전문대 (15개교)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영동대, 인천가톨릭대, 중부대, 초당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협성대 (대출제한 대학 9개교 포함)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웅지세무대, 주성대(대출제한 대학 8개교 포함)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 2012년학년도 2학년생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밝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4년제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 한도 제한 9개대를 비롯해 경남대·경성대·경주대·고신대·그리스도대·극동대·관동대·대전대·상명대·서남대·서울기독대·서원대·영동대·인천가톨릭대·중부대·초당대·평택대·한국국제대·협성대 등 28개다.

전문대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 한도 제한 8개대를 포함, 국제대·동주대·부산정보대·서라벌대·세경대·웅지세무대·주성대 등 15개다.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날 중순 공개된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대를 특별관리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5·18가치 세계가 공유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록한 자료와 사진 등이 5일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식 선포됐다. 민주·인권·평화 공동체를 추구했던 80년 광주 정신이 세계가 인정하고 추앙하는 자랑스런 역사로 기록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데이비슨 헵번(Davidson L. Hepburn) UNESCO 총회 의장과 조이 스프링거(Joie Springer) UNESCO 세계기록유산담당관, 김황식 국무총리, 강운태 광주시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등재추진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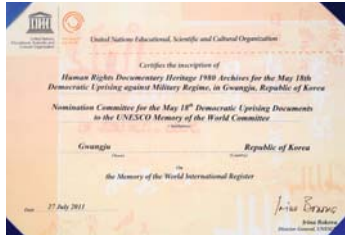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국내·외에 선포한 이날 전달식에서 스프링거 담당관은 강운태 시장과 김영진 추진위원장에게 유네스코의 직인이 선포한 세계기록

유산 인증서를 전달했다.

헵번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임을 선포한다"며 "앞으로 이 가치를 보존하고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류종수 UN재단 상임고문이 대독한 축사에서 "5·18 기록물의 등재는 광주 시민과 추진위원회, 대한민국 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항쟁의 의미를 넘어 인권 존중 및 정의 실현이라는 범세계적인 가치와 시민정신을 대변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는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5·18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게 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며 "현대상 자료인 5·18 기록물이 등재됨으로써 필리핀 민주혁명과 남아공 인권운동 같은



세계기록유산 인증서

세계적인 민주화운동과 여계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의 민주화 역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민주화 역사로 자리매김한 것을 유엔이 인정했다"며 "오늘은 지난 30년 동안의 통일이 한순간에 찢긴 날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금자탑을 쌓은 날"이라고 감격했다. 강 시장은 이날 헵번 의장 등 참석한贵宾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헵번 의장, 스프링거 담당관, 류종수 상임고문은 이날 전달식에서 강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명예광주 시민이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곽노현교육감 내일중 영장청구 검토

검찰 출두 조사 "이면합의 물랐고 사정 딱해 돈 쥐" 혐의 부인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및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5일 광노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6일 한 차례 더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광 교육감을 6일 재소환해 조사한 뒤 7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8일께 범원의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광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광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박 교수 진술과 양측 캠프 인사를 대화 녹취록, 박 교수가 정리해 둔 별도의 문건 등을 증거자료를 들이밀며 광 교육감을 압박했다.

광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하고 있지만 대가성, 이

면합의 보고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면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받지 못했다. 작년 10월졸업가 알게 됐지만, 그대로 있다가 올해 초 박 교수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사정이 절박하다는 걸 전해듣고는 선의 차원에서 돈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광 교육감은 교육청을 나서면서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정물였던 검정을 떠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부산 성도고(13회), 부산대 법학과(93학번) 졸업
- 제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33기) 수료
- 대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형사 1부, 광주지방법원 형사(공안부) 검사

변호사 권오성 올림

• 업무개시: 2011. 8. 26.
• 업무주소: 부산 연제구 가래1동 1493-1 한세빌딩203호
• 대표전화: (051)507-9601 • 팩스: (051)507-9602
• 개업시간: 2011. 9. 19(월) 오후 5시 30분부터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아리따운 내 가슴 愛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1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1년 10월 9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최**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동시 실시**

종목 10Km / 5Km

참가비 10,000원 **주최** 전국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campaign.com
주최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메뉴에서 '핑크리본 마라톤' 클릭
하위 메뉴 '사랑마라톤 참가신청' 클릭하여 약관 동의 후 신청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AMOREPACIFIC CORPORATION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카프

후원 | 한국유방암학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 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협찬 | HERA, 케토톱, 르까프